

시험 답해킹 고교생, '전과목 유출 시도'

원격 조종 실패하자 교사들 노트북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 일부 교사, 지침 어기고 시험지 비밀번호 설정 안 해 '회근'

교사 노트북을 해킹한 광주 대동고 2학년 학생들이 20과목 중 16과목의 시험지 답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교 측이 지침을 어기는 등 출제 기간 중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교무실 내 출제 교사 노트북 심수대에 악성 코드를 심어 시험 답안 등을 빼낸 혐의(업무방해·건조물침입)를 받는 광주 대동고 2학년생 A·B군의 구제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B군은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밤 대동고 본관 2·4층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 출제 교사 노트북 10여 대에서 중간·기말고사 시험 답안 등을 빼내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를 통틀어 총 20과목의 시험 답안을 출제 교사 노트북에서 빼내려 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올 3월 중순 교무실에 처음 침입, 원격 조종이 가능한 '페이로드' 프로그램을 통한 해킹을 시도, 출제 정보를 자신의 PC로 전송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킹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다시 학교에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 화면을 수분 간격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3~4일이 지나 다시 학교에 침입, 여러 화면 중 문항 정보표(정답·배점)가 담긴 파일만 골라 휴대용 저장 장치(USB)에 담아갔다.

이들은 USB 저장 용량이 넉넉치 않아, 시험 문제·답안지를 선별하고자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 동안 교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교 측이 출제 기간 중 시험지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정황도 추가 확인했다.

일부 교사는 광주시교육청의 고교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을 어긴 채, 하드

디스크에 시험지 원본 파일을 저장해 뒀다. 또 시험지 출제 작업 중 파일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침에 따라 교사는 지필 평가 출제 원본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또 원본 파일을 노트북 하드디스크가 아닌 이동식 저장 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실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일부 과목의 시험·답안지 파일 원본은 학생들이 손쉽게 뚫어져 빼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교무실 안팎 보안 시설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교내 공간 재배치 공사를 하면서 보안 시설 작동을 멈춘 이후 재가동되지 않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중간·기말고사 20과목 중 16과목의 문답을 빼돌렸다. 중간 7과목(수학1·수학2·독서·생물과학·한문·일본어·화학), 기말 9과목(지구과학·한국사·수학1·수학2·독서·한문·생명과학·일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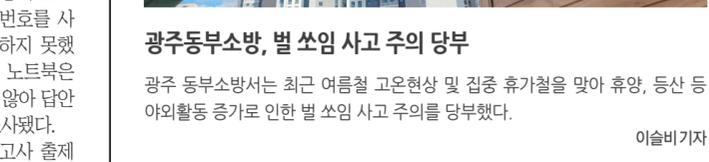
화학) 등이다. 다만 중간고사에선 한국사·지구과학·영어 등 3과목, 기말고사는 영어 1과목의 시험 답안을 빼들리지 못했다.

영어 출제 교사 2명 중 1명의 노트북은 보안이 강화된 'PIN' 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접근 자체를 하지 못했다. 또 다른 영어과 교사의 노트북은 악성 코드가 실행조차 되지 않아 답안을 빼들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지구과학은 중간고사 출제 기간 중 침입했을 당시 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있었거나, 악성 코드로 구동되는 화면 갈무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두 과목은 기말고사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유출됐다.

영어 교과 출제 교사의 노트북만 사실상 유일하게 보안을 뚫지 못한 셈이다.

경찰은 이들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망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정보 과학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광주동부소방,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

광주 동부소방서는 최근 여름철 고온현상 및 집중 휴가철을 맞아 휴양,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벌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광양소방,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최근 3달(5월 ~ 7월) 6건의 차량 화재로 관내 차량 화재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완도소방, 기타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을 연중 실시한다.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무상보급 및 사후관리를 8~9월 중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소방, 3년 만의 물축제 관련 야외행사장 안전점검

장흥소방서(서장 신항식)는 7월 29일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대비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담양경찰,보행자 중심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합동 캠페인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모범운전자회와 합동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경찰-빛가람아파트연합, 업무협약식 개최

지난 7월 29일 나주경찰서장(총경 김선우)은 빛가람아파트연합과 함께 나주시민의 안전과 범죄없는 도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연이은 태풍이 몰고온 파도

제5호 태풍 '송다'와 제6호 '트라세'는 각각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따뜻한 수증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2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됐다.

제5호 태풍 '송다'와 제6호 '트라세'의 직접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2리 인근 앞바다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송다'와 '트라세'는 각각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따뜻한 수증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2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준석 ‘성접대 의혹’ 참고인 추가조사 더 해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참고인을 세 차례 접견조사 했지만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키스트 대표(수감 중)에 대해 "수사일정에 따라 추가 조사가 몇번 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지만, 수감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접견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고 질문에 대한 참고인의 답변 성향에 따라 조사가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김 대표)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참고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 시절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등 제기된 의혹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김 청장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 수사간부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왜 압수수색도 않고 관련자 조사도 하지 않았느냐"며 책임자를 공개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서울경찰청의 인지수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껴 지적한 것"이라며 "(이 대표 관련 사건 외에) 열 몇 가지 사건을 언급했다"고

최이슬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대법 다음주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다음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MBC는 지난 2018년 11월25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리빙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는 주진우 전 기자와 배우 김의성씨가 출연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가 이 전 대통령의 중국 어식 발음인 '리빙보'라는 인물이 거액의 달러를 두 차례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실수로 동명이인 A씨에게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입금 시도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도 방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MBC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필요성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슬비기자

무안 해수욕장서 중국 국적 50대 남성 사망

지난 7월 31일 오후 4시 21분께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한 해수욕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바다에 사람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안=이기성기자